

카자흐스탄 한국학 진흥을 위한 한국학센터의 역할

장호중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Роль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развитии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Автор: Чжан Хо Джонг, КазУМОиМЯ,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Резюм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ахстана имеются следующие проблемы: снижени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езультативности вследствие ослабл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тороны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м преподавании не хватает разнообразия, в связи с упором на язык; отсутствует ведущ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в Казахстане.

В связи с этим,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в КазУМОиМЯ им.Абылай хана был открыт Центр Корееведения, который планирует осуществление следующих мероприятий:

1) Развитие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средством выпуска сборников статей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проведение конференций.

2) Усиле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тороны корееведения посредством введения он-лайн лекций, разработка и выпуск учебных и методических пособий.

3) Актив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средством создания базы данных корееведов, выпуска бюллетеней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и пр.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кафедра ориенталистики КазУМОиМЯ осуществляет а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корееведами не только Кореи, но и других стран,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имеет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и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в науке. И это может стать основой и движущей силой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реевед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развитие корееведения, нетворк корееведов,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Центр Корееведения

주제어: 카자흐스탄 한국학, 한국학 진흥, 한국학네트워크, 한국어교육, 한국학센터

1. 머리말

1980년대까지 소비에트 연방의 한국학은 양적인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중앙 아시아 각국의 한국학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첫째, 한국학의 대상이 북한 중심에서 남한 중심으로 옮겨갔다. 둘째, 정치, 외교적인 필요성보다 취업, 한류 등 실용적인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셋째, 한국학의 전문성이 약화된 반면에 한국어교육의 수요는 크게 늘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현재 카자흐스탄의 한국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1) 한국학의 전문성이 약화되어 연구성과가 저조하다.
- (2) 각 대학의 강좌가 한국어에 치중되어 한국학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 (3) 카자흐스탄 한국학을 이끌 중추적인 기관이 없다.

이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는 카자흐스탄의 한국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한국학센터를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1) 한국학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한국학의 연구 역량을 향상한다.
- (2) 온라인 강의 개설, 교재 개발 등을 통하여 한국학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3) 한국학 연구자 D/B 구축,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학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한국학센터는 위와 같은 연구 사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한국학센터의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기로 한다.

2.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 현황

1990년대 이후 카자흐스탄의 한국어교육은 양적으로 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각 교육기관에서 3,5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력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관심과 ‘한류’로 일컬어지는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으로 보아 한국어교육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한국어 교사는 200여 명도 되지 않아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동양학이 아닌 한국학으로서의 역사나 정치, 경제 등의 전문가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표 1> 카자흐스탄의 한국어교육 현황 (2011년 06월 현재)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대학(학과 및 제 2 외국어)	16	763	36+a
알마티 한국교육원	1(14개 학급)	730	10
초등, 중등교육기관	26	784	30
한글학교(종교단체 포함)	44	1,266	69
계	87	3,543	145+a

<표 2> 한국어강좌 개설대학(16개)

대학명	구분	학생수	교사수
카자흐 국립대	학과 1994.09	95	12
카자흐 국립사범대	학과 1991.09	22	1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학과/제 2 외 1999.09	228	12
크질오르다대	학과 1991.09	8	?
제트수 국립대	학과 1998.09	62	2
타라즈 국립사범대	학과 1999.09	22	2
동카자흐 광성전문대	제 2 외국어	45	1
카자흐 경제대	제 2 외국어	96	1
동카자흐 국립대	제 2 외국어	36	2
남카자흐 국립대	제 2 외국어	33	1
아스타나 린그바대	제 2 외국어	11	?
카라간다 부케토프대	제 2 외국어	11	?
알마티 MAB 아카데미	제 2 외국어	15	?
카자흐 국립예술아카데미	제 2 외국어	10	1
KIMEP 대	제 2 외국어	50	?
알라타우 전문대	제 2 외국어	19	1
계		763	36+a

<표 2>에서 보듯이 대학들도 한국어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카자흐 국립대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만이 교사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한국어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한데, 학생 수나 교사 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카자흐 국립대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한국학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 보기로 한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는 1993년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좌가 실시되었고, 1998년 박 벨리 교수를 학과장으로 하여 한국학과 설립되었다. 1999년 한국학과 4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여 2004년 1회 졸업생 3명을 배출하였으며, 2005년 2회 졸업생 15명 등 매년 20명 내외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신입생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해마다 40-50명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다음은 2012년 현재 한국학 관련 수강생의 현황이다.

<표 3> 한국학 수강생

	한국학과	동양학과	통번역학과	제2외국어	계
1학년	23	9	19	-	51
2학년	45	10	-	88	143
3학년	16	8	-	27	51
4학년	10	6	-	46	62
석사	2	-	-	-	2
박사	1	-	-	-	1
합	97	33	19	161	310

* 2012-2013 학년도 기준.

** 통번역학과 한국어전공은 2012년 9월 신설.

*** 제2외국어는 1학년 2학기부터.

위와 같은 수강생의 한국어교육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지닌 12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박사학위를 지닌 교사도 3명이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한국어세계화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에서 파견된 원어민 교사들도 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교사들의 성별, 연령, 학위, 전공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2011

년 KOICA 봉사단원 철수 이후 교사 수급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대학에 비하여 안정적인 교수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한국학 교수진

이름 Name	직위 Position	전공 Major	학위 Degree	임용년도 (본교)
박 넬리	한국학센터 센터장	유럽어학	박사	1998.09
김 아나스타샤	한국학과 학과장	한국어	박사	2005.03
한 넬리	전임강사	한국어	박사 재학	1999.02
김 올리야나	전임강사	한국학	석사	2006.09
부르미스트로바 E.	강사	한국어	석사	2006.09
누르갈리에바 A.	강사	한국어	석사	2008.09
전 엘레나	강사	신학	석사	2010.02
김 이리나	강사	언론학	학사(5년제)	2012.09
방정식	강사	문화학	석사	2010.09
김영경	강사	상담학	석사	2010.09
김 Susan K.	강사	영어영문	석사	2012.09
장호중	KF 과건교수	한국어학	박사	2009.09

이처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한국어교육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은 초대 학과장(1998년-2012년)을 지낸 박 넬리 교수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 넬리 교수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한국어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1년에는 한국정부의 '한글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박 넬리 교수는 한국과의 학생 교류에도 힘써, 2003년 전주 기전대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래,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아주대 등 한국의 17개 주요대학들과 교환학생, 복수학위 등을 진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표 5> 참조)

<표 5> 학생 교류 현황

	대학명	2003-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1	중앙대	9/2	3/3	5/5	2/0	3/2	4/3	3/2	2/1	30/18
2	경희대			3/0	4/5	5/2	4/3	6/4	2/2	24/16
3	한국외대							3/7	3/0	3/7
4	아주대						5/1	2/0	2/0	9/1
5	대구대		2/0	1/1	2/3	2/2	5/2		3/0	15/8
6	배재대		0/2	0/5	4/3	4/0	5/0	4/0	4/0	21/10
7	계명대	5/0	2/0	4/0	0/1	3/0	2/0	4/0	2/0	22/1
8	대전대							2/0	3/2	5/2
9	충북대	10/2	8/1	2/2	3/2	4/2	1/3	4/4	2/1	34/17
10	부산외대					2/2	2/0	2/2		6/4
11	부경대							2/0		2/0
12	원광대							2/0	2/0	4/0
13	중부대							1/0	3/0	4/0
14	국민대								2/0	2/0
15	가천대									
16	(기전대)	1/0								1/0
17	(AKS)						1/0	1/0	1/0	3/0
	계(카→한 /한→카)	25/4	15/6	15/13	15/14	23/10	29/12	36/19	31/6	189/84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한국어교육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한국어교육의 발전은 크게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의 외형적인 성장에 비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국학은 오히려

려 퇴보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언어학, 문학, 역사, 정치, 경제 등의 한국학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어교육의 성장도 머지않아 한계에 다다를 것이 분명하다.

이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는 2012년 10월 9일 한국학센터 설립¹하고 초대 센터장에 박 넬리 교수가 부임하여,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학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학 진흥의 여러 사업을 소개하고,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구축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3. KazUIR&WL 한국학센터의 사업 목표와 방향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내적으로 한국학의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한국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한국학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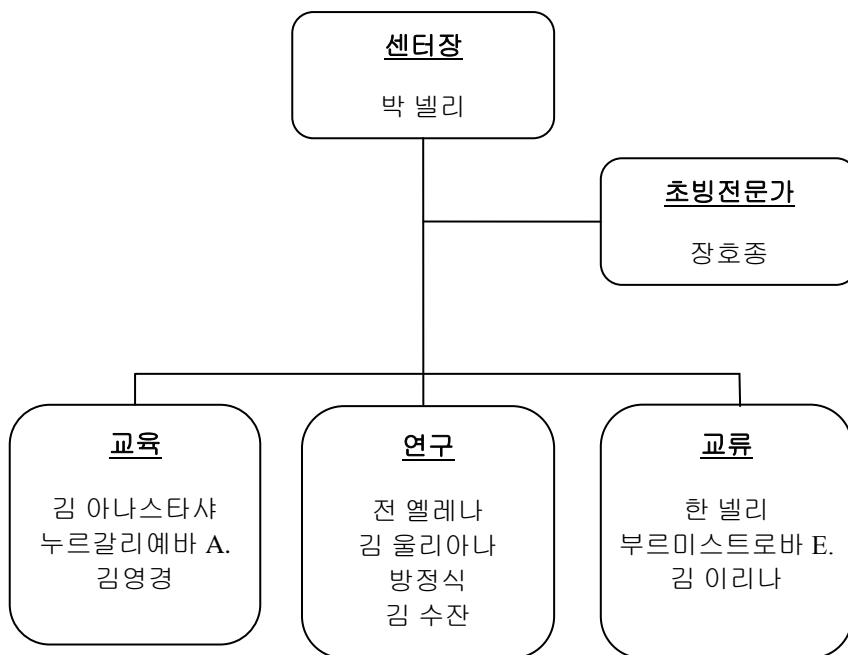
한국학센터 설립

- (1) 공간적 측면: 한국학자료실, 온라인강의실의 기능을 겸하는 교육 및 연구 공간
- (2) 연구 교육 측면: 학술지 발간, 강좌 및 교재 개발 등을 통해 연구 능력 향상 도모
- (3) 교류 협력 측면: 한국학연구자 D/B 구축 등을 통해 한국학의 교류 협력 강화

이를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센터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현재 한국학과 교수진은 대체로 언어, 문학, 문화와 관련한 전공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아직 강의 경험과 연구 성과가 많지 않은 신진인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수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¹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한국학센터 개원식은 연합뉴스를 통하여 한국에 소개되었고, 한국학중앙연구원(Academy of Korean Studies)은 온라인소식지를 통하여 한국학센터에서 앞으로 진행해 나갈 연구사업을 세계 한국학자들에게 소개하였다.

<그림 1> 한국학센터 조직도



외적으로 한국학의 성과를 보급하는 한편,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카자흐스탄의 한국학 진흥에 앞장 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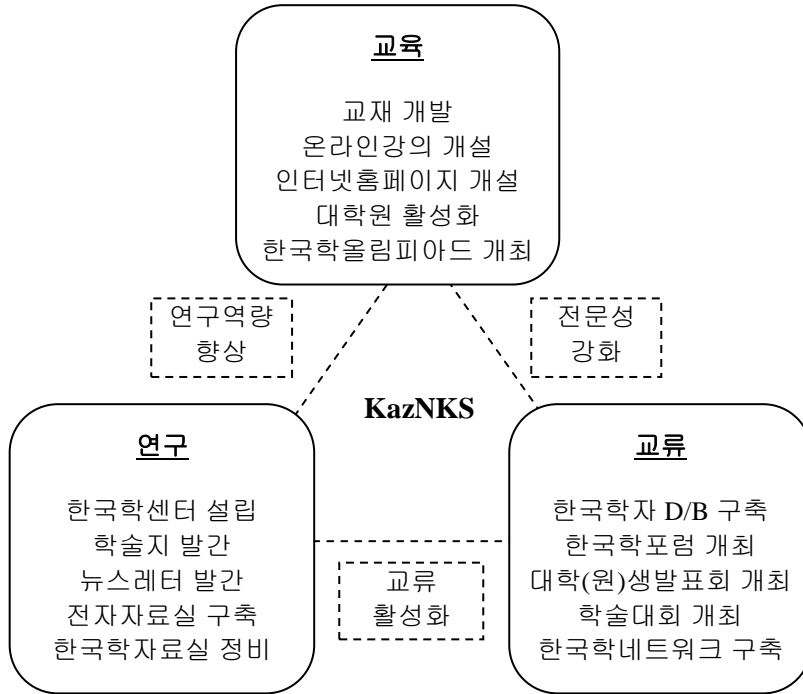
한국학네트워크 구축

- (1) 인력 양성: 교수세미나/연수 등 전문성 강화와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 (2) 기관 교류: 온라인강의, 복수학위제 등 연구 교육의 실질적 교류 협력 체계 정착
- (3) 성과 확산: 뉴스레터, 학술대회 등을 통한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결과물 확대 재생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들은 ‘한국학 강의개발, 한국학 인력양성, 연구교육환경개선, 한국학센터 건립, 네트워크 구축, 한국학 보급’으로 구분하여 <그림 2>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학센터가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 역량을 향상하여 그

성과를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CIS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급해 나가는 것은 물론, 해외한국학계와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져 나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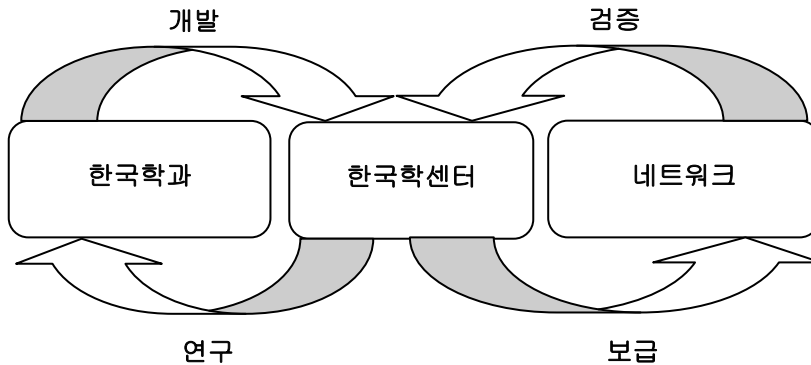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사업



그간 한국학과는 한국의 학자들(곽충구, 이기갑, 권재일, 김주원 교수 등)과 고려말 방언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겨레말 큰사전 편찬 작업에서 고려말 어휘를 담당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한국어 1~6”의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등 한국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해 왔다. 또한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아주대 등 한국의 자매대학과 교환학생, 복수 학위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사업을 통해 연구 및 교육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에 생소한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현황을 소개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각 연구 사업은 발전적 선순환구조를 지향한다. 예를 들어 강의 및 교재 개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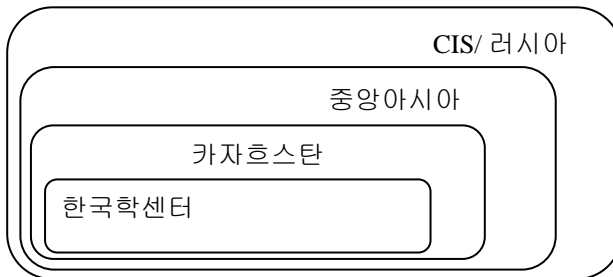
<그림 3> 교재 개발



현행 커리큘럼은 언어와 문학, 경제에 집중되어 있어서 한국학 분야의 다양화가 주요 과제이다. 또한 대학의 교수진이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여러 분야의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장학제도 정비, 연구발표회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졸업생들과의 연계를 공고히 하여 학과에서 배출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다.

아울러 현재 학과 교수진의 전공과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비교문화’, ‘한러 러한 통번역’ 강의를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한다. 2015년까지 1 단계 교재를 개발하고, 이후 2, 3 단계 교재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그림 4> 한국학 성과의 확산



현재 학과는 카자흐스탄한국학교수회를 주도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한국학 기관 및 연구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사업을 통한 한국학 연구 교육 성과를 보급하여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진흥을 도모할 것이다.

학과는 중앙아시아한국학회(CAAKS)의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러시아 한국학 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해 왔다. 따라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병기할 사업성과는 카자흐스탄은 물론, 러시아어권인 중앙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 보급하는데에 이점이 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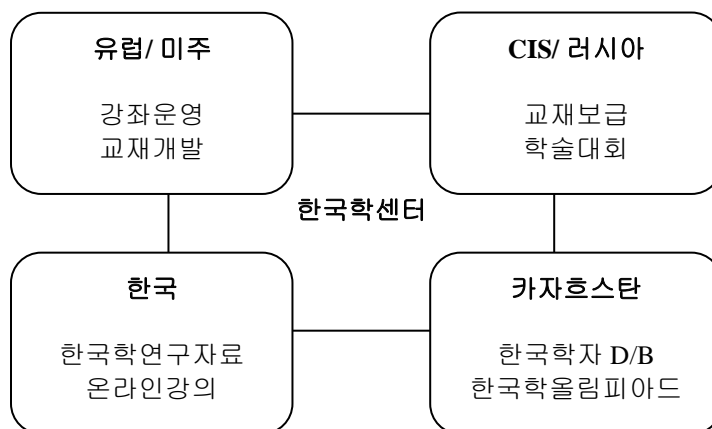
4. 결론

KazUIR&WL 한국학센터는 카자흐스탄의 한국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1) 한국학센터: 온라인강의실, 한국학자료실의 기능을 겸한 통합공간 + 연구 + 교류
- (2) 강의, 교재 개발: 한국학의 전문성 강화와 분야의 다양화 추구. ‘비교문화’와 ‘통번역’
- (3) 학술지, 뉴스레터 발간: 카자흐스탄의 한국학 현황 소개 및 성과 보급
- (4) 한국학 행사 개최: 올림피아드, 학술대회, 교수세미나 등 한국학 관련 행사
- (5) 한국학네트워크 구축: 카자흐스탄 한국학연구자 D/B 구축 등 교류 협력 강화

지금까지 KazUIR&WL 한국학과는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학자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험은 본교가 카자흐스탄 한국학 진흥을 선도하는 데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국학센터가 중심이 되어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의 한국학계와 교류, 협력해 나갈 것이다.

<그림 5> 교류, 협력



참고문헌

1. 기광서 역(1999), Vanin, Yuri et al., <러시아의 한국 연구: 한국 인식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적 구조>, 풀잎, 358p.
2. 박일재, 홍사명 편(1990), <소련의 한국학>, 한국학술진흥재단.
3. 임영상, 김현택, 김 게르만(2004), <독립국가연합 지역 한국학 진흥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4. 장호중(2009), <민족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이중성: 러시아의 한국어교육>, 박문사, 385p.
5. Концевич, Л.(2003), “Modern Korean Studies in Russia”,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3, Москва: Муравей, pp.7~76.